

Hello, my name is Sister Vincent Marie Sidick. I entered the Sisters of Charity of Seton Hill in 1962. I am the middle child of four children (the only girl). Before I entered the community, I was registered in the field of x-ray technology. I graduated from Mercy Hospital in Pittsburgh, Pennsylvania. My last place of employment was St. Clair Hospital, Mt. Lebanon, PA. I graduated from Seton Hill in 1972 with a BA in Sociology.

Following my Novitiate training, I was missioned to Pittsburgh Hospital. After one year I was missioned to Jeannette

District Memorial Hospital as Administrator of the X-ray Dept. Five years later, the Hospital Administration sent me to study Nuclear Medicine at the Nuclear Institute in Cleveland, Ohio. After two years of study and two years of Practical Work, I passed my certification Boards. I was employed by JDMH for 25 years. During this time, I taught CCD on Sundays for

seventeen years at St. Boniface Church, for those to be confirmed. After retiring, I accepted a position at the Deborah Heart and Lung Hospital in New Jersey. I loved the work, but missed community and family. After four years, I returned to Pennsylvania.



I then served as The Administrator of The Sisters of Charity Center in Greensburg. This was during the transition between the closing of Assumption Hall and the planning of Caritas Christi. My responsibilities included Personnel, Buildings and Grounds. Next I accepted a position with Housing Management. I managed Germaine

Harbor, Senior Low Income

Housing, for seventeen years. I am presently in residence there where I coordinate activities for seniors. Germaine Harbor is located in Bethel Park which is my home town.



Currently, I'm accredited by the
Catholic Cemeteries Association to lead
Committal Services as well as Memorial
Prayer Services at the Queen of Heaven Cemetery.

I am grateful for my years in the community. I have always tried to live my

life by accepting all that happens, as God's plan for me.



안녕하세요! 빈센트 마리 시딕 수녀(Sister Vincent Marie Sidick)입니다. 저는 1962 년 수녀회에 입회했습니다. 저는 4 남매 중 유일한 딸이에요. 입회하기 전에 펜실베이니아 주 피츠버그의 자비의 병원학교(Mercy Hospital)의 방사선과를 졸업했습니다. 마운트 레바논의 세인트 클레어 병원(St. Clair Hospital, Mt. Lebanon, PA) 에서 마지막으로 일을 했지요. 그리고 수녀원에 들어와 1972 년에 씨튼힐 대학의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수련기를 마친 후 피츠버그 병원에서 사도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는 쟈넷

디스트릭트 메모리얼 병원(Jeannette District Memorial Hospital)에서 엑스레이과 담당자로 파견을 받았지요. 5 년 후, 저희 병원 행정팀에서 저에게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의 원자력

연구소에서 핵의학을 공부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2 년 과정의 공부와 2 년 동안의 실습기간을 거친 후에 인증 위원회의 자격승인을 받았지요. 그리고 다시 25 년 동안 쟈넷 디스트릭트 메모리얼 병원에서 일을 했습니다. 이 병원에서 일하는 동안에 성 보니파시오 성당(St. Boniface Church)에서 매 주일마다 견진 교리반을 17 년 동안 가르치기도 했어요. 그 곳에서 은퇴한 후에는 뉴저지 주의 심장과 폐



전문 병원인 데보라 병원(Deborah Heart and Lung Hospital)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지요. 사실 이 일을 좋아했지만 공동체와 가족이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4 년 동안 일을 한 후 다시 펜실베이니아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그린스버그에서 사랑의 수녀회 센터(The Sisters of Charity Center)에서 행정 담당으로 봉사했습니다. 이때가 승천홀을 닫고 까리타스 크리스티를 준비하는 기간이었어요. 저는 인사 및 건물, 부지에 대한 책임을 맡았지요. 그 후에는 17 년 동안 저소득 노인들을 위한 주택인 저메인 하버(Germaine Harbor)를 관리했습니다. 현재 그 곳에

머물며 노인들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관리하고 담당하고 있어요. 저메인 하버는

저의 고향인 베텔 파크(Bethel Park)에 있답니다.

그리고, 묘지 연합회의 승인(Cemeteries Association)을 받아 퀸 오브 헤븐 묘지(Queen of



Heaven Cemetery)의 장례예식과 추모기도를 담당하고 있어요.

저는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항상 하느님의 계획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려고 노력해왔으며 공동체 안에서 살아온 저의 삶에 감사드립니다.

